

곡성군, 청년 주거환경 개선 월세·세어하우스 지원

혼자 거주 청년 주거비 지원 매달 10만원 씩 12개월 제공 33명 대상... 31일까지 마감 세어하우스, 24일까지 접수

곡성군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여러 명이 거주하는 세어하우스를 운영한다. 곡성군은 지역에 혼자 거주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1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인 단독가구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다만 정부·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총 33명이며 오는 31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

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명이 거주하는 '청년 세어하우스'도 마련했다. 희망자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어하우스 입주 청년은 침실은 따로 사용하며 주방과 거실 등을 공유한다. 타 지역에서 곡성으로 출퇴근을 하는 청년과 취업 준비생이 지원 대상이다. 세어하우스 모집인원은 8명이며 보증금 30만원, 월 7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및 주거비 지원 대상, 결혼을 한 청년은 제외된다. 곡성군은 세어하우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청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곡성에 머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중대재해예방 추진상황 보고회 영광군, 관리감독자 대상

영광군이 중대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영광군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중인 중대처벌법에 따라 최근 소속 사업장 및 시민재해 시설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하는 관리감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건강진단,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인력확보와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조치여부,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마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 등이다.

보고회에서는 사고를 원천 단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여부와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업무추진 시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달라"며 "사고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재해예방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업체 모집 장성군, 농수축산물·식품 등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대상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물품을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기부시스템 고향사랑e(이)음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통신판매업 신고증 소지가 필수다.

모집 분야는 △장성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 △편백제품 등 장성군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지역특산물 △체험·숙박 할인권 등 관광 서비스 상품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청 총무과 자치분권팀(061-390-7239)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안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 참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답례품 스티커도 제작 활용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며 장성지역 업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게 명품 농특산물, 장성사랑상품권을 비롯해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할 인권, 별초대행 서비스 이용할 인권 등 풍성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부 참여는 전국 농협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식목일 기념 '편백 3000주' 식재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임야 2ha

나주시는 지난 16일 나주 문평면 국동리 임야 2ha 78회 식목일 기념 '나주사랑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운병태 시장을 비롯, 시청 공무원 410명, 국립나주숲체원,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나주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등 지역 사회·기관단체 관계자 등 500명이 참여했다. 운 시장 등은 편백나무 3000주를 식재했으며 봄철 산불 예방과 쾌적한 산림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도 병행했다.

시는 바람길숲, 도시숲 조성조림, 숲가꾸기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과 함께 나무심기-수확-활용에 걸친 지속가능한 목재산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2050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나주=박승엽 기자

선임대 후매도 '청년농 농지확보' 농어촌공사, 29일까지 접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임대 후매도' 방식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농지 소유 꿈 실현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과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소재한 농지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농지가 소재한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운병태 나주시장, 이춘형 나주시 관광문화환경국장 포함 공무원 등 500명이 식목일 기념 문평면 국동리 임야 2ha에 편백 3000주를 식재했다. **나주시 제공**

화순군립요양병원, 전남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경·중증치매환자 관리 기대

화순군은 지난 15일 화순군립요양병원이 전남 1호이자 전국 11번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치매관리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폭력이나 배회 등 행동심리증상이 동반되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 등을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의



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전용 시설(전문병동) 및 장비·인력 등을 갖춘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치매전문병동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일반병동 2층과 3층을 126병상 규모 치매전문병동으로 리모델링했다. 이번 승인은 3층 치매안심병동 60병상을 시작으로 치매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잔여 치매전문병동(63병상)에 대해 추가 지정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는 화순군 보건소 보건행정팀(061-379-5304)으로 하면 된다.

곡성 대표 악취지역 구원지구 축사 철거

농식품부 공간정비사업 선정 90억원 확보...편의시설 조성

곡성 구원지구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축사 등이 철거된다.

곡성군은 구원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 공

모사업'에 선정돼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구원지구는 돈사·계사·메추리사 등 축사가 밀집돼 있어 악취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여름철 악취가 2km 이상까지 전달됐으며 축사시설이 도립사 국민관광단지, 섬진강 기차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 밀집해 있어 관광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곡성군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 내 축사 등을 철거하고 부지 3만 3000㎡를 매입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생태공원, 산책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코레일·전남도와 담양 관광사진 전시회

담양군은 오는 4월28일까지 광주시 송정역을 시작으로 목포역, 전남도청 등에서 '담양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하루 2만명이 이용하는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의 통행로와

전남도청 1층 운선도홀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담양을 알리고자 전시를 추진했다.

20일까지 광주 송정역에서 전시가 진행되며 21~31일 목포역, 4월3~28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다.

전시작품은 담양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방제림 등 담양의 아름다움을 담은 관광 사진 작품 50여 점을 선별했다.

담양군은 사진전과 함께 오는 5월3~7일 개최되는 담양 대나무축제 '2023 New Bamboo Festival'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조진용 기자**